복숭아 동해를 최소화 합시다!

동해 발생 요인

품종, 대목의 종류, 수령, 나무 세력, 저장양분, 휴면상태 및 가지의 종류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며 과수원의 지형, 토양조건, 저온 강도, 저온 지속시간 및 과수원의 관리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큼

동해를 줄이기 위해 시기별로 이렇게 대비합시다.

○ 과수원을 처음 조성할 때

- 겨울철 최저기온이 -18℃ 이하의 온도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과수원 조성
- 상대적으로 내한성이 강한 품종 선택

* 가납암백도, 오도로끼(경봉), 일천백봉, 서미골드 등의 품종은 동해에 특히 약하므로 중·북부지방에서는 품종 선택 시 특히 주의해야 함

내한성 정도 (주지 피해율*)	품종명
강 (20% 미만)	수미, 미홍, 유미, 용택골드, 마도까, 용성황도, 황귀비, 백천, 찌요마루, 영봉 등
중 (21~50%)	대월, 유명, 장택백봉, 미백도, 애천중도, 이즈미백도, 백미조생, 아까즈끼, 천중도백도, 장호원황도 등
약 (51% 이상)	가납암백도, 오도로끼(경봉), 일천백봉, 서미골드, 선골드, 키라라노키와미, 스위트광황 등

* 최저기온(-18℃내외)에서 주간부 피해 발생율

○ 복숭아 재배과정 중

- 과다결실 및 질소 과용을 삼가하고 나무의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
- 동해 예방 및 꽃눈 분화를 위해 나무의 저장양분(탄수화물) 축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수확 후에도 토양수분관리,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조기 낙엽방지 및 광 환경 개선 등에 힘써야 함
- 과도한 강전정은 삼가고 배수가 불량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동해에 취약하므로 반드시 배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

○겨울나기 전

- 지제부는 온도변화가 심하여 동해를 쉽게 받으므로 겨울철에 원줄기 80~100cm 부위까지 볏짚이나 부직포로 싸주어 보온 처리함
- 어린나무에서는 원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(백도제)를 발라주어 주간부의 주야간 온도변화를 줄여줌

<볏짚, 수성페인트 바르기, 신문지 피복>

동해를 받은 나무는 이렇게 관리합니다.

○원줄기에 동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세회복에 도움 됨

○지제부에 동해를 받은 나무는 전정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줄이고 봄철 건조기에 관수를 철저히 하여 수세 회복을 유도함

○가지 및 꽃눈만 동해 피해를 입은 경우 착과량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약전정을 하고, 적과시기를 늦추고, 질소질비료 시비량은 30 ~ 50% 줄여줌

○동해로 수세가 떨어졌을 때 기계유유제 살포는 피하고 동해를 받으면 동고병, 수지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발아 직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며 생육기 병해충 방지를 위해 예방 위주의 방제 철저히 함

농촌진흥청 기술 보급과 | 548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| 063·238·0987